

친환경 자연순환 농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협회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농학박사 농업연구관 곽정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양과 질에 있어서 모두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축산식품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축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왔으나,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의 부적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종종 발생되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도 일부 발생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축산업의 현실은 국제곡물가의 상승과 함께 한·미 FTA, 한·EU ETA,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매우 어려움에 접해 있으며, 여기에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며,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부응하는 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정부뿐만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조기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협회가 중심으로 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으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47,000천톤('11년) 정도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즉,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충분한 원료를 이용하여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부터 신선한 분뇨의 생산과 함께 (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회원들의 가축분뇨 이용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하는 경종농가를 축산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다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가축분뇨 적정자원화 관련연구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Biogas 생산 및 IT 및 GPS 등 최신키술을 활용한 퇴·액비의 농경지의 특성에 따라 적정량이 환원될 수 있는 정밀농업에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가 축산·경종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곧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지로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